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7-8

2013 <http://www.ucac.or.kr>

화려한 궁중음식이 빚어내는
춤의 대향연

장금이

춤으로 표현한 「장금이」의 실감나는 음식경연 짓가락춤, 접시춤 등
천만 관객의 영화 '왕의 남자'에서 외줄타기를 선보인
남사당놀이예 권원태 특별출연!!

안무 및 연출



김상덕 예술감독

주역



김기, 이귀은



김은, 이상희



홍서운, 박원우

특별출연



권원태



김미자



최형규



차소민형소녀무용단

2013. 7.18(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가격_ R 10,000 S 7,000 A 5,000 좌권 30%, 단체 10인 이상 20% 할인

공연문의_ 275-9623~8, <http://www.ucac.or.kr>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 / O / N / T / E / N / T / S



04 기획공연 | 스위트콘서트
모닝 콘서트



08 울산시립예술단 공연 | 시립교향악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시립교향악단 가족음악회 2
시립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시립무용단 제31회 정기공연
시립무용단 기획공연



16 기획전시 | 올해의 작가개인전
야외조각 II부 전시

20 예술을 말하다 | 독일의 오페라
세계의 문화도시
재미있는 미술여행
예술의 축제를 찾아서
스토리텔러 베를리오즈

30 공연·전시가이드 | 7·8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7·8월호 통권 166호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달동 413-13)
T.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발행인 | 이형조 편집인 | 안종철

기획·편집 | 박용하, 고순영

편집 |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 예성인쇄기획 T.052-227-3884

Sweet Concert Season 6

정선아의 뮤지컬감라콘서트

‘스위트콘서트’로 울산이 달콤해진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스위트콘서트’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자체제작공연으로 올해 시즌6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4년간 진행되었던 스위트콘서트는 뮤지컬 배우 백재현, 강효성, 김선영, 홍지민, 김호영, 최정원 등 쟁쟁한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거처간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대표적인 상설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국내 대형뮤지컬에 빠지지 않고 최정상급 배우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뮤지컬 배우 ‘정선아’와 재치 있는 입담과 연기력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뮤지컬 배우 ‘조휘’가 콘서트를 이끌어 간다. ‘2013 스위트콘서트’는 오는 7월 11일 정선아의 두 번째 공연이 열리고 9월을 조휘의 뮤지컬토크, 그리고 다시 11월 7일은 정선아의 마지막 스위트콘서트로 이어진다.

오는 7월11일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정선아의 사회로 진행되는 스위트콘서트는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로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던 “박은태”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박은태”는 최근 뮤지컬 엘리자벳, 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등 대형뮤지컬에 캐스팅되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선아와 함께 무대 뒷이야기들을 통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

2013. 7. 11(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출 연 : 정선아
- 게스트 : 박은태
- 입장권 : 1만5천원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 급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Profile

■ 박은태

*Musical

2013년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예수 역
 2012년 <황태자 루돌프> 루돌프 역
 2012년 <모차르트!> 모차르트 역
 2012년 <엘리자벳> 루케니 역
 2011년 <햄릿> 햄릿 역
 2011년 <피맛골연가> 김생 역
 2011년 <모차르트!> 모차르트 역
 2010년 <피맛골 연가> 김생 역
 2010년 <모차르트!> 모차르트 역
 2009년 <사랑은 비를 타고> 동현 역
 2008~9년 <햄릿> 레어티스 역
 2007~9년 <노트르담 드 파리> 그랭구아르 역
 2005년 <라이언 킹> 앙상블

*Play

2011년 <거미여인의 키스> 몰리나 역

*Discography

2011년 드라마 <무사 백동수 OST>
 2010년 김현식 20주년 추모앨범
 2006년 <김현철 Imagination 2006> 객원 보컬
 2005년 드라마 <내사랑 못난이 OST>
 2005년 첼로 2집 객원보컬,
 2001년 첼로 1집 객원보컬

*Concert

2010년 콘서트 D
 2010년 김준수 뮤지컬 콘서트- Levay With Friends
 2010년 오스트리아/독일 우베크뤼거 콘서트 'ABSOLUTE UWE' 초청

Profile

■ 정선아

*Musical

렌트, 맘마미아, 지킬&하이드, 헤어화, 나인, 제너두, 드림걸즈, 모차르트, 아이다, 아가씨와 건달들, 에비타, 광화문 연가

*수상

제2,3회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조연상(2008, 2009)
 제4회 더 뮤지컬 어워즈 인기상(2010)
 제16회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상 (2010)
 2011년 골든 티켓 어워즈 뮤지컬 여우주연상(2012)



Morning Concert Season 6.

2013 모닝콘서트 7월

버섯 피자

오페라



2013년 7월 모닝콘서트에서는 “오페라 버섯피자”가 올려진다. 오페라 “버섯피자”는 그동안 틀에 박혀있던 관념과 형식을 거부한 소규모 블랙코메디 오페라이다. 네사람의 각기 다른 성부의 성악가가 노래하는 재미있는 현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이야기로 오페라 장르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일순간 잊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 짧은 코믹오페라로 재미와 웃음, 음악이 어우러져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이다. 신나는 음악과 익살스러운 연기, 다양한 소품과 유쾌한 연출로 시종일관 웃음을 선사하는 짜임새 높은 오페라공연이며, 관객들의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어로 공연한다.

■ 줄거리

포르마쥬 백작과 결혼한 여주인공 불룩뚜아는 젊고 매력 있는 스킨피오와 사랑에 빠진다. 불룩뚜아는 자신의 사랑인 스킨피오와 결혼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이혼이 금지되어 있어 남편이 좋아하는 버섯피자에 독버섯을 넣어 죽이기로 한다. 하지만 백작은 그를 연모하던 하녀 포비아를 통해 이 계략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얽히고 설킨 관계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다양성을 고려한 울산문화예술회관 모닝콘서트는 매월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6월 “미술관옆음악회”는 미술과 음악을 함께 감상할 수 있고 7월에는 소규모 오페라인 “오페라 버섯피자” 그리고 8월에는 방학특집으로 “음악으로 떠나는 배낭여행2” 편이 마련된다.



캐스트



Sop. 장은녕



M.Sop. 성미진



Ten. 이해성



Bass. 박상진



p.f. 임소영

연출



연출. 안주은

2013. 7. 25(목)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연출 : 안주은
- 출연 : 장은녕(Sop.), 성미진(M.Sop.), 이해성(Ten.), 박상진(Bass) 임소영(p.f)
- 입장권 : 전석7천원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급 :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 가능



Morning Concert Season 6.

2013 모닝콘서트 8월 방학특집

"음악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2"

‘음악과 함께 떠나는 배낭여행’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8월 22일 ‘음악과 함께 떠나는 배낭여행’ 이 공연될 예정이다.

공연을 통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객에게는 유용한 정보와 설렘을 안겨주고,

이미 다녀온 분들에게는 여행 당시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예정이다.

2012년 “음악과 함께 떠나는 배낭여행”의 두 번째 버전인 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미국, 러시아, 스페인, 이집트의 대표적인 음악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딱딱한 진행의 해설자가 아닌 배낭을 맨 연기가 맛깔 나는 연기로 공연을 진행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공연 내내 재미를 느끼게 하며 생생한 유럽의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이 공연은 ‘A whole New World’ 등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으로 시작하여 러시아의 전쟁음악, 스페인의 탱고를 거쳐 이집트가 배경이 되었던 음악으로 마무리된다.

■ 출연진



M.Sop. 권숙희



Sop. 강다인



Sop. 강주희



Sop. 서수지



Bar. 최모세



Bass. 박상진



뮤지컬/연기. 변준우



뮤지컬/연기. 조설규



뮤지컬/연기. 이승하



무용단장. 최선희



연출. 안주은

● Program

- A Whole New World – 알라딘
- Under The Sea – 인어공주
- Beauty and the beast – 미녀와 야수
- 카추사의 노래 – 알라딘
- 전승의 날 –인어공주
- Por Una Cabeza – 탱고
- Lieber Tango – 여인의향기 중
- 복수의 불꽃 타오르는 가슴 –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여왕 아리아
- Der Holle Rache kockt in meinem Herzen – 파미나 아리아
- Ach, ich fuehls es ist verschwunden – 파파게노 아리아

2013. 8. 22(목)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연 출 : 안주은, 무용단장 : 최선희
- 출 연 : 권숙희, 강다인, 강주희, 서수지, 최모세, 박상진, 변준우, 조설규, 이승하
- 입장권 : 전석7천원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 급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2013 정기연주 시리즈 名作 IV

名作

Rimsky Korsakov

림스키 코르사코프

Program

베토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61
림스키 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 작품35



지휘 김홍재



바이올린 김재영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제166회 정기연주회 명작시리즈 네 번째 순서로 러시아의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 편이다. 러시아의 음악가 림스키코르사코프(1844-1908)는 서양음악사상 가장 뛰어난 관현악법의 대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현악법’ 즉 ‘오케스트레이션’이란 특정 선율에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편성하는 방법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오케스트라는 더욱 생기 넘치는 소리를 만들어낸다. 림스키코르사코프는 그의 작품 속에서 매우 독특하고 화려한 관현악법을 구사했을 뿐 아니라 관현악법의 원리에 대한 유명한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우리에게 <아라비안나이트>로 잘 알려진 <천일야화> 줄거리를 주제로 작곡한 4악장구성의 교향시 <세헤라자데>가 연주되어진다. 우리에게는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 김연아 선수를 통해 이 곡이 유명하게 되었다.

그 중 2악장은 ‘칼린더 왕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회교의 수도승 칼린더의 모험은 처음에 고독한 느낌의 바순 소리로 시작해 좀 더 밝은 오보에 연주로 이어지면서 칼린더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헤라자데> 3악장에서 독주 바이올린이 화음을 연주하거나 활을 튀어 오르듯 연주하며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는 부분은 인상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악기로도 타악기 같은 딱딱한 소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관악기로 현악기 같은 서정적인 소리를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진정 ‘소리의 마법사’라 할 만하다. 해군의 관악 밴드의 지휘자이자 플루트와 클라리넷 연주에 능했던 림스키코르사코프는 관악기를 특히 사랑했던 작곡가로, 그

의 음악 속엔 여러 관악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곤 한다. 특히 이 악장 중간에는 트롬본이 솔로를 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세헤라자데> 3악장에서 타악기들이 독특한 소리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쇠줄이 달린 작은북이 찰랑이는 음색으로 이국적인 리듬을 연주하면 이를 배경으로 클라리넷이 유쾌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곧이어 탬버린과 트라이앵글이 반짝이는 소리로 목관 앙상블을 장식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섬세하고 맑은 바이올린 사운드 젊은 현악사중주 콰르텟의 리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섬세한 음색과 신중한 내면적 감성에 밑바탕을 둔 주목 받는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은 8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만13세에 서울시향과 데뷔 무대를 가졌다. 이후 예원, 예고를 거쳐 한국에 숭실대학교에 영재 입학하며 김남운 교수 아래 실력을 쌓았으며 졸업 이후 도독하여 현재 뮌헨국립음대에서 크리스토퍼 포펜(Christoph Poppen)사사로 최고 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다.

김재영은 이화정향, 음악춘추, 한국일보, 동아, 부산, 신인 음악콩쿠르 등에 입상했고, 이후 2003년 그리스에서 열린 영 바이올리니스트 국제콩쿠르에서 2위, 같은 해 사라사테 국제콩쿠르에서 4위, 2007년 윤이상 국제 콩쿠르에서 3위와 특별상, 2010년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 파이널리스트로 MIMC상, 제37회 루이스 시갈 콩쿠르 3위를 수상했다. 일찍이 실내악에도 남다른 열정과 재능을 보였던 김재영은 2005년 지겐 콰르텟의 리더로 프라하 국제 현악 콩쿠르에서 2위와 함께 최연소상, 현대곡상, 말러 상을 수상했고, 이후 2007년 노부스 콰르텟을 결성, 2008년 오사카 챔버 국제음악콩쿠르에서 3위 입상하였다.

이어 2009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리옹 챔버 국제음악콩쿠르에서 3위 입상했으며 최근 2012년 3월 하이든 국제 실내악콩쿠르에서 3위 및 청중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과 유럽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차세대 연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금호 솔로이스츠의 멤버, 노부스 콰르텟의 리더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3. 7. 19(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 협연 : 바이올린 김재영
- 입장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교향악단 2013 晝音(화음)시리즈
미술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

로망스

화음시리즈는 2011년에 울산시립교향악단이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회로 야심차게 기획한 기획프로그램이다. 올 해 2013 晝音(화음)시리즈는 2월 2일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그의 일대기를 비제의 '아를의 여인'과 꾸며졌으며, 이번 화음시리즈는 7월 25일 (목)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아스트토리텔러 하진욱의 해설로 펼쳐진다. 이번 음악회는 '로망스'라는 주제로 네 명의 화가와 그들의 작품세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었던 연인들과의 사랑이야기이다.

로망스 the Romance

1. 루벤스와 헬레나 푸르망 : 궁정화가의 지위를 던져버린 화가의 사랑이야기



• 루벤스, 그녀의 아내 헬레나 푸르망, 그들의 아들 폴

루벤스는 그는 초상화는 물론 종교화, 태피스트리, 동판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재능을 나타낸 16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으로, 루벤스 그림의 특징인 섬세한 의상과 건장한 신체 동작의 묘사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 화가들에게도 모범이 되었다.

2. 렘브란트와 헨드리케 : 가난한 화가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아내이야기



• 렘브란트의 <강기에서 목욕하는 여인>

유럽회화 역사상 가장 존경을 받는 화가 중 한 명으로 17세기 네덜란드의 작가들은 거의 모두 그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 유화, 소묘, 정교화, 초상화, 풍경화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그렸으며, 화려한 빛놀이, 풍부한 색채,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한 빛과 어두움, 렘브란트 그림의 매력은 명성을 누리던 젊은 시절보다 고독과 파산의 연속이었던 말년에 더욱 빛났다.

3. 로맹과 까미유 끌로델 :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야기



• 로맹의 연인 <까미유 끌로델>

근대 조각의 시조이며, 근대 조각 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였던 프랑스 출신의 조각가이다. 현대의 미켈란젤로, 조각의 거장이란 찬사가 뒤따랐던 천재 조각가 로맹은, 그가 남긴 열정적인 조각들만큼이나 뜨거운 삶을 살았다.

4. 모딜리아니와 잔 에뷔테른 : 죽어서도 그의 모델이 되고자 했던 그녀의 사랑이야기



•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

미술계에 등장한 화가 가운데서 가장 미남이자 사람에 대한 애정이 넘쳤던 멋진 화가 모딜리아니는 방랑자적 기질과 무소유가 어울리는 로맨티스트. 원래는 조각가를 꿈꾸던 모딜리아니는 그가 조각을 공부하면서 해 본 미술적 경험이 그의 화풍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지휘 김종규



• 소프라노 김유진



• 테너 김지호



• 미술해설 하진욱

● 프로그램

- 글링카 /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 베토벤 / 로망스
- 구노 /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Juliet's Waltz Song
- 푸치니 /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들고'
- 레하르 / 오페레타 '즐거운 미망인' 중 이중창 '입술은 침묵하고'
- 차이콥스키 /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

2013. 7. 25(목)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 휘 : 김종규(부지휘자)
- 미술해설 : 하진욱
- 협 연 : Sop 김유진, Ten 김지호
- 입장권 : 전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 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울산시립교향악단 가족음악회

그림자로 보는 발레이야기 '잠자는 숲속의 미녀'

울산시립교향악단의 가족음악회로 그림자음악회 '잠자는 숲 속의 미녀'를 야심차게 기획하였다. 그림자 음악회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아직 클래식에 익숙치 않는 어린친구들과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그림자극과 함께 꾸민 음악회이다. 지금까지 피터와 늑대, 동물의 사육제, 마술피리 등의 많은 작품들을 기획하였으며,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음악 중 하나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8월 말 무더운 여름의 막바지에 가족들과 함께 공연장에 방문하여 시원하고 쾌적한 공연장에서 격조 높은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음악회가 될 것이다.

■ 차이콥스키 / 잠자는 숲속의 미녀

Tchaikovsky(1840~1893, 러시아) / The Sleeping Beauty, Op.66

프랑스의 동화작가 샤를 페로의 잠자는 공주에 바탕을 두고 만든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곡 중의 하나가 [잠자는 숲 속의 미녀]이다. 백조의 호수, 지젤과 함께 가장 많이 연주되는 이 작품은 차이코프스키의 다른 발레 작품인 백조의 호수나 호두까기인형처럼 초연에서 참담한 실패와 혹평을 얻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음악이 너무나 탁월했다는데 있었다. 당시 무용음악은 단순한 것이 대부분으로, 차이코프스키처럼 정교한 음악이 무용에서 쓰이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만큼 이 작품은 각 장면들이 음악과 함께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표제음악과도 같다.

<프롤로그> 오로라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파티가 한창인 가운데 초대받지 못한 마녀가 등장해 공주에게 저주를 하고 파티장을 떠난다.

<제 1막> 공주의 16번째 생일 파티가 한창인데 마녀가 나타나 저주를 읊조리자 공주는 물레에 찢려 쓰러진다. 이 때 라일락 요정이 공주를 100년간 잠들게 하는 마법을 걸고 가시덤불로 성을 뒤덮어버린다.

<제 2막-1장> 100년이 흘러 이웃나라의 데지레 왕자가 사냥을 하는데 라일락 요정이 나타나 왕자에게 오로라 공주의 환상을 보여주며 도움을 청한다. 왕자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가시덤불로 가득한 성으로 향한다.

제 2장 라일락 요정은 마법으로 마녀의 악한 힘을 잃게 만들고 데지레 왕자는 가시덤불을 헤쳐나가 용을 물리치고 잠들어 있는 공주에게 키스를 건네자 공주는 100년의 잠에서 깨어난다.

<제 3막>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결혼식장으로 온 하객들이 모여들어 결혼을 축하하는 춤을 춘다. 장화 신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빨간 모자 소녀와 늑대, 등등의 축하가 이어지고,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는 라일락요정의 축복으로 결혼을 한다.

2013. 8. 23(금) 19:30

24(토) 15:00 2일 공연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 휘 : 김종규 (부지휘자)

■ 출 연 : 극단 영 (그림자극)

■ 입장권 : 전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 급 : 만 5세이상 입장 가능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차세대 거장과 함께하는 마에스트로 콘서트 (The Rising Maestero Concert)



한국합창계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폭 넓은 양식의 연주회를 마련하고자 매년 1회씩 준비하고 있는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으로 올 해는 한국합창지휘 자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김종인, 이문기 지휘자가 무대에 오른다. 두 지휘자는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체코 등 유럽 각지에서 현대와 고전을 아우르는 다양한 학위와 연주 경험을 통해 문무(文武)를 겸비하고 현재 대학 강의와 함께 전문연주단체에서 활동하며 미래의 마에스트로로 받돋움하고 있다. 한국가곡을 비롯하여 영화 OST, 흑인영가, 러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세계 각국의 민요, 가요, 팝송 등 다양한 형식의 합창곡을 선보일 '마에스트로 콘서트' (The Rising Maestero Covcert)는 차세대 거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13. 7. 16(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지 휘 : 김종인, 이문기
- 입장권 : 전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 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Profile



[지휘자 : 김종인]

- 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미국 북텍사스대(UNT) 합창지휘 및 성악 석사
-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대(USC) 합창지휘 및 오케스트라 지휘 박사
- 미국 로스앤젤레스 Choraleum Choir 지휘
- 미국 LA Korea Youth Chamber Orchestra 지휘
- 미국 LA Heavenly Voices Children Choir 지휘
- 미국 LA CALA Choir 지휘
- 미국 텍사스 UNT Collegium Choir & Orchestra 지휘
- 미국 텍사스 UNT Women's Choir 지휘
- 미국 콜로라도 Crested Butte Mountain Festival Orchestra 지휘
- 미국 달라스 제일연합감리교회 지휘
- 미국 LA WMU(World Mission University) 객원교수 역임
- 대한민국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역임
- 현재 협성대, 서울장신대, 장신대 성결대 강사 출강

• 혼성합창

I Gondolieri(곤돌라 뱃사공)
〈지아코모 로시니(J.Rossini) 곡〉

I Just fall in Love again
〈스테판 도르프(Stephan Dorff) 곡〉

동반자
〈김통률 곡 / 이문기 편곡〉

사랑이 올까요
〈윤일상 곡 / 김지영 편곡〉

• 여성합창

Sigh No More Ladies
〈Ralph Vaughan Williams 작곡〉

Ave Maria
〈David Reznick 작곡〉

Duerme Negrito
〈Emilio Solo 편곡〉

Tres Cantos Nativos
〈Marcos Leite 편곡〉

Make a Joyful Noise
〈Rollo Dilworth 편곡〉

• 남성합창

나그네
〈변훈 곡 / 이문기 편곡〉

백학
〈안프랭켈작곡/신동수편곡〉

베로니카 봄이 왔어요
〈발터 위르만(Walter Jurmann) 곡
빌리 파르텐(Willy Parten)편곡〉

• 혼성합창

영화 James Bond 007 중 테마
〈Jay Althouse 편곡〉

영화 Beverly hills Cop 중 Axel F
〈Deke Sharon 편곡〉

We are the World
〈Jay Althouse 편곡〉

Every y Time I Feel The Spirit
〈Moses Hog 편곡〉

영화 씨니 중 'Sunny'
〈김미선 편곡〉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쾰른 국립음대 성악과 졸업
-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합창지휘과 졸업
- 독일 라이프치히 하일란트교회 지휘
- 체코 프라하 ECM 예크나교회 지휘
- 독일 라이프치히 한인합창단 지휘
- 독일 쾰른 국립오페라극장 합창단원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오페라극장 합창단원
-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 캄머코어 부지휘자 역임
- 군산시립합창단 상임 트레이너 역임
- 성악연구회 '상때' 음악감독 역임
-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과정 합창지휘법 강의
숙명여자대학교 합창수업 및 지휘법 강의
오페라 앙상블C 지휘자
국악-양악 휴전오케스트라 '통오케스트라' 지휘자
서울보컬솔로이스츠(Seoul Vocal Soloists) 지휘자



[지휘자 : 이문기]

Profile

울산시립무용단 제31회 정기공연

장금이

화려한 궁중음식이 빛어내는 **춤의 대향연**

춤으로 표현한 『장금이』의 실감나는 음식경연 젓가락춤, 접시춤 등
천만 관객 영화 '왕의 남자'의 외줄타기 - 남사당놀이패 권원태 명인 특별출연!!

50% 이상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TV드라마 '대장금'

울산시립무용단 아름다운 춤과 화려한 무대연출로 『장금이』가 다시 관객을 만난다!

수라간 나인에서 의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한 여성의 강한 집념과 의지를 담은 기교 넘치는 춤의 향연
과 다양한 전통 음식을 통해 당대의 문화와 선조들의 기품을 엿볼 수 있는 전통문화 교육의 장이 이번 무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안무 - 김상덕



• 김상덕

특별출연 - 권원태



• 권원태



• 김미자



• 최형규



• 차소민 청소년무용단

프/로/그/램

- 프롤로그 <장금이 어린시절>
- 궁궐 <궁중내 애환과 갈등>
- 고행, 그리고 인연
<장금의 파란만장한 생애>
- 금영과의 요리경합
<집념과 의지로 궁중최고의 요리사>
- 사랑의 듀엣 <장금과 깊은 인연>
- 에필로그 <조선조 의녀 장금이>

2013.7.18(목)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안 무 :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 조안무: 김현미
- 특별출연: 권원태, 김미자, 최형규, 차소민청소년무용단
- 음악감독: 김백천
- 입장권 : R석/10,000원 · S석/7,000원 · A석5,000원
(회관회원 30%, 단체 20% 할인)
- 등 급 : 만 5세이상 입장 가능

K.D 슈퍼스타 II

예술감독 ★ 김상덕

한국 전통춤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을 목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립무용단에서는 8월30일 (금)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 공연장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무용공연 "K.D 슈퍼스타 II"를 울산문화예술회관 소 공연장에서 감상 할수있을 것이다.

무용수들의 예술혼의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관람 할수 있을 것이며, K.D 슈퍼스타 에 이어 "K.D 슈퍼스타 II"에서는 훌륭한 무용수들의 개성과 기교의 춤사위를 현장에서 감상 할수 있을 것이며, 관객들과 함께 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 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

■해설 : 최은영

- 하늘마치<울산시립무용단>
- 청<김수진>
- 빛을 따라갈런다<김현미>
- 한 여름 밤의 꿈<노기현>
- 흐노니<최진욱>
- 여우여자<박수정>
- 편(片)<이호준>
- 필수없는꽃 (장옥정)<이주리>
- 화합<울산시립무용단>

2013. 8. 30(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안 무 :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 사 회 : 미정
- 출 연 : 김수진, 김현미, 노기현, 최진욱, 박수정, 이호준, 이주리
- 입장권 : 전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 급 : 만 5세이상 입장 가능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

6~12월 갤러리 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올해 3월 옥내 주차장에서 당직실로 이어지는 통로를 전시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시민들이 부담없이 미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전시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갤러리 심”이라 명명하며 기존 전시장과 차별화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이곳에서 추진하는 예술회관의 야심찬 기획은 지역의 유망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 전시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작가들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의 작가 개인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의 참여작가 6명(김필순, 조서인, 전미옥, 양희숙, 박선지, 하혜정)이 지난 5월말 최종 확정되었으며, 6월에는 합동전시가 “갤러리 심”의 개장기념전시로 열렸다.

7월부터는 6명의 작가들이 릴레이 개인전 형식으로 개최된다.

7 월의 작가 - 김필순展

7. 1(월)~7. 30(화), 30일간

김필순 작가는 올해 울산광역시미술대전 대상 수상자로 현대 물질문명 속의 인간성의 부재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는 이 주제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를 생명체의 확장된 시선으로 넓혀 몸 밖으로 뻗힌 가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려는 선인장을 의인화하여 현재의 인간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선보인다.

작가는 “선인장의 가시는 본디 없이 변한 모습이다. 그것은 매우 방어적이고 날카롭지만 식물에서는 양분을 합성시키는 요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시는 선인장의 외부소통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인장 특유의 생명유지, 생명력의 그 강인함과 외부와



• 김필순 작 <잘못된 채널 10>

의 조화된 형상의 이미지는 현대인의 편리적인 단상과도 그 의미를 같이할 수 있다.” 고 말한다.



• 합동전시 개막식



• 김필순 작 <잘못된 채널 8>

8 월의 작가 - 조서인展

8. 1(목)~8. 30(금), 30일간

최연소 참여작가로 선배들과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더욱 뜻 깊은 전시라는 조서인 작가는 “꽃을 단 호랑이”를 주제로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을 전시한다.

작가는 “호랑이는 강인함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의 호랑이는 야생이 아니라 동물원 우리 속에 갇혀 번식마저 인공의 힘을 빌려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호랑이 가죽을 입고 있으나 야성을 잊어버린 채 사육당하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 속에서 강대국의 논리에 휘둘리고,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에 혼란스러운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았다.”고 말한다.

젊은 작가 특유의 통통튀는 감각으로 무거운 주제를 밝게 풀어냈다.



• 조서인 작 <Faderation>



• 조서인 작 <Faderation>



• 7월의 작가 / 김필순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 · 아트페어 8회(서울, 부산, 울산, 일본)

■ 수상

· 울산미술대전 대상(2013), 특선 3회, 입선 3회
· 신라미술대전 특선 3회, 입선 2회

■ 단체전

2012. 세가지 思惟(울산)
이랑회 엽서전(울산)
KOREA and CHINA(울산)
나눔 예술제(울산)
긴자전(일본 도쿄)
2011. 반도갤러리 초대전(중국, 반도신문사)
반도갤러리 초대전(중국, 반도신문사)아트
울산 신진작가 초대전(울산 MBC)
경주문화엑스포 특별전(경주 엑스포)
한중미술 교류전(중국 장춘)
네개의 사유(울산)
색과 형상전 초대전(뉴욕빌리지미술관)
2010. 모호한 경계 화려한 징후(경주)
2011~12. 울산미술협회전
2006~12. 울산미술작가회전 · 이랑회전(울산)

현재, 한국미술협회, 울산미술협회, 울산미술작가회
이랑회 회원, 신라미술대전 추천작가



• 8월의 작가 / 조서인

· 울산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 수상

2011. 대한민국한국화대전 입선(광주)
2009~08. 무등미술대전 입선 2회(광주)
2009~08. 울산미술대전 입선 2회(울산)
2009. 김해미술대전 입선(김해)
2008. TBJ형상미술대전 특선(공주)
부산미술대전 입선(부산) · 개천미술대전 입선(진주)
구상전 입선(경기) · 대한민국한국화특장전 입선(광주)

■ 단체전

2012. 탄탄대로(일본)
2011.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울산)
Wi-fi(일본)
2009. 민화전 크루즈(울산)
TOKYO- Virus(일본)
옛지전(울산)
2008. 사랑합니다. 민화전(울산)
자화상전(전주)
Bangudae dreamy landscapes(일본)
2007. 나는 오늘 민화를 보았다.(울산)
Bangudae-Fly to the sky(일본)
NOW전(울산)

현재, 울산청년작가회 회원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II부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한층 다가가고자 예술의 숲 일원에서 야외조각 전시를 연중상설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부산, 광주,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울산 등 전국 조각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국조각가협회 21명 회원들의 다채로운 야외조각 작품 42점이 총 3부에 걸쳐 선보이고 있다.

6월 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열리는 제II부 전시에는 김종필, 박수광, 위재환, 이완숙, 이채국, 조경훈, 홍영표 작가의 작품 14점이 전시된다.

김종필 작가는 동심을 표현한 <꿈꾸는 숲>과 고뇌하는 현대인의 단면을 표현한 <샘>을 출품하였다. 석조작업을 하는 박수광 작가는 <자연의 잉태>를 주제로, 돌을 다듬고 쪼고, 갈아서 다양한 질감을 가진 작품을 출품하였다.

위재환 작가의 벤치와 창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삭막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려진 공간을 통해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선사한다.

동물형상을 강렬한 색채와 함께 표현한 이완숙 작가의 작업은 특히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의 원로 조각가 이채국 작가는 기계를 사용하는 인위적인 조형작업을 최대한 배제한 자연 그대로의 석재를 사용한 작업을 선보인다.

익살스러운 동물형상과 열쇠를 확대한 팝아트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조경훈 작가는 젊은 작가 특유의 기발함이 눈길을 끌것으로 예상된다.

2m가 넘는 의자 작품 두 점을 각각 나무와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여 제작한 홍영표 작가의 작품은 재료에 따라 같은 주제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지 비교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재료와 화려한 색채, 사실적인 형상을 이용한 작품들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한 도심 속의 열린 사랑방 예술의 숲에서 음악과 함께 조각 작품을 감상하면서 일상의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란다.



• 박수광 작 <자연의 잉태>



• 이완숙 작 <Mixed breed>



• 이채국 작 <석마>



• 조경훈 작 <a Red Key>

6. 1(토)~9. 23(월), 115일간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

- 초대작가 : 김종필(충남), 박수광(대전), 위재환(광주), 이완숙(강원)
이채국(울산), 조경훈(강원), 홍영표(강원)



• 김종필 작 <꿈꾸는 숲>



• 홍영표 작 <Memory 2_기억>



• 위재환 작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독일의 오페라
세계의 문화도시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예술축제를 찾아서
스토리텔러 베를리오즈

Part.2 7·8월의 공연·전시

7·8월의 공연·전시 일정



리하르트 바그너(II)



〈 파리 시절 바그너 〉



〈 리엔치 초연 당시 드레스덴 궁정극장 내부 전경 〉



〈 민나 플러너 - 바그너 첫부인 〉

바그너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배경인 보헤미안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후에 마그데부르크를 근거지로 하는 순회극단을 운영하는 하인리히 베틀만으로부터 자신의 극단 음악감독직을 제의 받는다. 바그너는 여기서 모차르트의 ‘돈조반니’를 지휘함으로써 자신의 지휘 데뷔무대를 성공리에 치르게 된다. 바그너는 1836년 3월 두번째 오페라 ‘연애금지 Das Liebesverbot’를 마그데부르크극장에서 초연했다. 이 작품의 검열 문제로 당국과 마찰이 생겨 ‘팔레르모의 수녀’라고 제목을 바꾸어 바그너 자신이 직접 지휘한 공연이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베틀만 극장은 파산하고 바그너는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어 힘든 상황에 봉착한다.

하지만 이 극단에서 그의 첫 부인 민나 플러너(Christine Wilhelmine Minna Planer, 1809~1866)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이 극단의 가장 유명한 주연 여배우였으며 아름다운 외모와 세련되고 솔직한 면을 지니고 있어 바그너가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녀에 대한 바그너의 열정은 다분히 오페라 ‘연애금지 Das Liebesverbot’ 속에 육체적인 사랑에 무게를 실는 내용으로 반영된다. 이 두 번째 오페라는 바그너 특유의 관능성과 탐미주의적인 경향이 어렴풋이나마 엿보이기 시작한다. 두사람이 결혼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1836년 11월, 23세의 바그너와 27세의 민나 플러너가 결혼을 하게 된다. 어렵사리 시작한 이들의 결혼 생활은 부부로서 서로에게 바라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바그너는 음악가로서 자신을 인정하고, 문학과 철학을 이해하며,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로서 아내를 원했고 민나는 바그너의 음악이나 정치 철학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

1837년 4월 바그너는 민나의 주선으로 간신히 쾨니히스베르크극장의 음악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극장은 파산직전이었고 설상가상으로 민나의 남성 편력은 끊임없이 바그너를 힘들게 한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바그너가 이끌린 책은 불워-리턴(Edward Bulwer-Lytton, 1803~1873)의 역사서 ‘리엔치, 로마의 마지막 호민관’이었다. 바그너는 1837년 8월 리가극장의 지휘자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지휘자로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리엔치’의 작곡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한편으로 리가에서 바그너 부부는 분수에 맞지 않은 호사스러운 생활로 빚더미에 앉았다. 게다가 1839년 3월 리가극장 경영진의 암투로 바그너의 지휘계약은 연장되지 않았다. 바그너 부부는 빚 때문에 여권마저 압수당한 상황이었다. 사실 바그너는 자신의 낭비벽으로 인해 평생 채무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둘은 리가를 간신히 탈출을 해서 프로이센 국경을 무사히 넘어 필라우 항구(현 발티스크 항)에 도착하였다. 세관원들의 눈을 피해 테티스호에 몰래 승선하여 갑판 밑에 숨어 들어갔는데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된다. 폭풍우로 인해 테티스호는 노르웨이의 산드비켄이라는 한적한 어촌에 임시로 정박하게 된다. 항구의 풍경, 바다가의 바위, 화강암 절벽에서 부딪혀 돌아오는 선원들의 외침. 여기서 바그너는 자신이 이미 구상 중이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과 딱 맞아 떨어지는 선원의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는 본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배경을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동경했던 땅, 스코틀랜드로 하였다가 이 경험을 계기로 노르웨이로 바꾸게 된다.

테티스호가 1839년 9월 런던에 도착하자 바그너는 런던 필하모닉협회 지휘자 조지 스마트경과 ‘리엔치’의 원작자 리턴을 만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파리로 갔

다.파리시기(1839년 가을 ~1842년 봄)에 바그너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음악가로서는 반복된 실패로 인해 쓰라림만 맛보았고, 이로 인해 우울증, 분노, 피해망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잦아지기도 했다. 당시 파리는 신흥 엘리트와 파벌이 지배하는 황금 만능주의와 걸치레만 가득한 피상적인 문화를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바그너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음악의 수도와는 거리가 먼 분위기였다. 1840년 파리 르네상스극장에서 '연애금지'를 무대에 올릴 때만해도 파리에서 서광이 비치는 듯 하였다. 하지만 이내 극장이 도산하였다. 1840년 말 완성된 '리엔치'의 스코어를 파리오페라측에 제출했으나 거절당했다.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 대한 계획서 역시 거절당했다. 그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프랑스, 이탈리아 오페라를 편곡, 교정, 평론, 가곡을 작곡하여 돈을 버는 게 고작이어서 이들 부부의 생활은 극도로 궁핍에 달했다. 이 당시 바그너가 보기에는 싸구려 여흥에 불과한 음악을 작곡하는 음악가들이 부와 명예를 얻고 정작 자기 같은 진정한 예술가가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는 상황에 분개하였다. 이 시기에 바그너가 생각하는 쉬운 성공을 거둔 동료작곡가들 중에는 마이어베어를 비롯한 유태인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 바그너의 일부유태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바그너는 파리의 예술적 토양을 바탕으로 예술과 인문 다방면에 걸쳐 많은 성장을 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만난 리스트는 바그너에게 음악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의 우정은 평생을 이어간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엥그린'도 리스트가 바이마르에서 초연 지휘를 하였고 훗날 리스트의 딸 코지마는 바그너의 아내가 된다. 작곡가 마이어베어와 오베르, 작가 스크리브와 알레비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대부분 그랜드 오페라인 이들의 작품을 편곡하거나 필사하면서 바그너는 역사적인 사실주의와 인간의 감정을 묘사하는데서 증폭되는 갈등, 그리고 거대한 군중이 등장하는 장면과 거대한 오케스트라 편성이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감동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 등장하는 저주받은 뱃사람 이야기의 모티브를 제공한 '슈나벨레보프스키씨의 회상'의 저자인 위대한 시인 하이네와도 파리에서 만나게 된다. 문헌학자 사무엘 레어스와 의 만남도 이어진다. 레어스는 급진적인 성향의 저서를 선별하여, 후일 바그너가 혁명에 참가하는 촉매역할을 한 프루동의 '재산이란 무엇인가', 포이에르바하의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바그너에게 소개한 학자이다. 바그너는 교향곡, 교향시, 극적칸타타가 한데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작품인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극적 교향곡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음악 작품의 전체적인 틀-종합예술이라는 측면-을 구상하는 또 하나의 주요계기를 가지게 된다. 바그너는 1840년 아브네크가 지휘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듣고 감동하여 '베토벤을 향한 순례길'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순수기악의 가능성은 '합창 교향곡' 1,2,3,악장에서 정점을 이루었고, 이제는 음악과 언어의 이상적인 합일로 나아가야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베토벤 교향곡9번의 감동은 바그너로 하여금 교향곡 '파우스트'의 작곡에 착수하게 한다. 이 작품은 1악장만 완성하였다가 15년 후 환상서곡 '파우스트'로 발표하게 된다.

1841년 11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초보를 완성한다. 바그너는 이 악보의 말미에 "역경을 극복하고 영광의 세계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글을 적어 파리 시절의 고단한 삶이 끝이 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바그너에게 파리에서 상연 허가를 받지 못한 오페라 '리엔치'가 드레스덴 궁정 극장에서 초연하기로 되었다는 낭보가 날아든다.

글 송중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시인 하이네리히 하이네〉
파리 시절 바그너의 지인



〈작곡가 엑토르 베를리오즈〉
파리 시절 바그너의 지인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
파리 시절 바그너의 지인



〈대본가 유진 스크리브〉
파리 시절 바그너의 지인



〈작곡가 자코모 마이어베어〉
파리 시절 바그너의 지인



〈작곡가 루도비코 알레비〉
파리 시절 바그너의 지인



루체른 KKL

최근 세계 음악계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속되는 겨울 시즌의 입장객은 매년 줄어들이지만 여름 페스티벌은 해마다 늘어난다는 점이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유서깊은 문화재가 있는 곳이면 음악제가 열리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바이로이트, 베로나, 뮌헨, 사본리나, 엑상 프로방스, 글라인데본, 잘츠부르크 등 유럽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음악제가 오페라 축제인데 반해 루체른 페스티벌은 교향악단 위주로 꾸며진다. 스위스 취리히 국제 공항에서 기차로 70분이면 도착하는 호반 도시 루체른. 1936년부터 이곳에서 음악제가 시작된 것은 히틀러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후 히틀러에 반대하는 토스카니니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무대에 서기를 거부하거나 출연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들은 잘츠부르크 대신에 루체른으로 향했다. 교통이 편리한 알프스 산자락의 호반 도시라는 훌륭한 입지 조건 때문이다. 루체른은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가 1866년부터 6년간 살면서 오페라 '마이스터징어' '니벨룽의 반지'를 작곡한 곳이어서 오페라와 인연이 깊지만 변변한 오페라 극장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향악단과 독주자의 협연 위주로 음악제를 꾸며왔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제1회 루체른 음악제는 히틀러가 총애했던 작곡가 바그너가 살았던 호숫가의 빌라 트립셴(Tribschen)에서 열렸다. 이 빌라는 현재 바그너 박물관으로 꾸며져 관광객과 바그너리안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971년 화재 이후 1989년 새 건물로 단장한 루체른 중앙역에서 걸어서 2분이면 KKL에 도착한다. KKL은 Kultur- und Kongresszentrum Luzern의 약칭이다. '루체른 문화·컨벤션 센터'라는 뜻이다. 루체른의 명물인 카펠 다리에서 100m 거리에 있다. KKL에서 보이는 호수 건너편에는 고급 호텔이 즐비하다. 산과 호수, 강으로 둘러싸인 인구 5만 7000명의 작은 휴양도시 루체른은 KKL의 개관과 함께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급성장했다. KKL은 관광객을 위한 그림엽서에 등장할 정도로 루체른의 명물로 떠올랐다.

1998년 8월 19일 제60회 루체른 페스티벌 개막 공연은 루체른 중앙역 옆에 새로 지은 루체른 KKL에서 열렸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

린 필하모닉이 볼프강 림의 'In-Schrift' (1995년작)에 이어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연주했다. 웨일스 태생의 베이스 바리톤 브린 터펠도 독창자로 무대에 섰다. KKL 덕분에 루체른에는 음악 축제가 거의 연중 무휴로 열린다. 이곳에는 여름 휴가는 물론이고 부활절(4월)과 추수감사절(11월말) 휴가 시즌에 관광객을 겨냥한 음악제가 열린다.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는 주로 종교음악과 교향악, 추수감사절 축제에는 피아노 독주회 위주로 프로그램을 꾸민다. 피에르 볼레즈가 예술감독을 맡은 현대음악 아카데미도 열린다. 매년 8월 중순부터 5주 동안 루체른 국제음악제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 교향악단들이 출연한다. 2003년에는 음악감독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이끄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출범했다. KKL 덕분에 루체른 음악제는 '페스티벌 중의 페스티벌'로 우뚝 성장했다.



KKL은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의 설계, 미국 ARTEC사의 러셀 존슨의 음향 컨설팅이 빚어낸 작품이다. 우주선 모양의 음향 반사판이 별빛을 수놓은 듯한 홀 천정에 매달려 있고 석고 타일로 된 내부 마감에다 문을 여닫아 잔향시간과 볼륨을 30%까지 조절할 수 있는 잔향실을 갖췄다. 콘서트홀에서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뿐만 아니라 실내악, 독주회, 오르간 독주회도 열리기 때문에 공연 장르에 따라 답는 그릇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1개의 콘서트홀로 3~4개의 공연장을 갖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KKL에는 대극장과 소극장이 따로 없다. 합창과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공연이나 피아노 독주회나 최적의 음향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자 밑에 설치한 공기조절 시스템으로 완벽에 가까운 소음 방지 덕분에 관객의 기침이나 연주자의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객석 구석구석에 그대로 전달될 정도다.

천장을 5층 규모의 높였고, 발코니의 깊이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객석 규모도 음향이 좋기로 소문난 보스턴 심포니홀, 빈 무지크 페어라인홀의 장점을 살렸다. 콘서트홀의 무대는 호수 수면보다 낮다. 루체른 호를 오가는 보트의 엔진 소음을 피하기 위해서다.



건축가 장 누벨은 로비는 물론 객석 내부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진한 보르도 적포도주 색과 청록색으로 꾸미려고 했으나 루체른 페스티벌의 출연진의 대표해서 건축 위원회에 참가한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더 부드러운 색깔을 원했다. 그래서 실내 마감은 부드러운 흰색으로 결정됐다. KKL이 들어선 자리는 호텔, 우체국, 미술관을 거쳐 1933년 아르민 메일리의 설계로 문을 연 공연장이 있던 곳이다. 루체른 페스티벌은 줄곧 이곳에서 열려왔다. 하지만 거의 연중 무휴로 늘어나는 음악제를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1980년 이 '아트 앤 컨벤션 센터' 건물에 치명적인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1988년 콘서트홀 건립을 위한 재단이 출범했고 출판업자 알리스 부커가 96만 스위스 프랑을 루체른 시에 기부하면서 공연장 신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1989년 설계 경계에서 프랑스 출신의 장 누벨이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루체른 시와 콘서트홀 재단은 제네바 출신의 루돌프 루셔의 설계안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아트 앤 컨벤션 센터'가 문화재로 지정 받지 못하자 건물을 아예 헐어버리기로 했다. 1994년 루체른 시의회는 65.7%의 찬성으로 9400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KKL 건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루체른 주는 2400만 스위스 프랑의 예산을 따로 마련했다. 총공사비는 2억 500만 스위스 프랑(약 1400억원)이 소요됐다. 2001년까지 예산이 초과돼 결국 2억 2650만 스위스 프랑으로 집계됐다. 공사 기간 중 루체른 페스티벌을 대형 천막에서 치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루체른 중앙역에서 5km 떨어진 제철소에 1800석짜리 임시 공연장을 마련했다.

건축가 장 누벨은 리옹 오페라 하우스에 이어 코펜하겐 심포니홀을 설계했으며 2012년 파리 빌레트 공원에 들어설 파리 필하모니의 설계를 맡았다. 루체른에는 KKL와 함께 객실 25개, 레스토랑 5개짜리 부티크 호텔(www.the-hotel.ch)의 인테리어 설계를 맡아 화제를 모았다. 누벨은 애초에 호수 안에 공연장을 지어 배처럼 띄울 생각이었다. 호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대한 유람선 모양의 설계안은 심사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시의원들은 호안선(湖岸線) 변경을 금지한 도시계획법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들고 나왔다.

결국 누벨은 한 발짝 후퇴해 호수가 바라보이는 유람선 선착장 옆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그가 남긴 말은 유명하다. "내가 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나에게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



누벨은 호수 안으로 튀어나온 건물을 짓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호수의 물줄기를 공연장 로비까지 끌어들이었다. 루체른홀 로비에서 콘서트홀 로비로 가려면 이 물줄기위의 다리를 두 번 건너야 한다. KKL은 공연 보러 왔다가 실수로 이곳에 빠져 옷을 적시는 사람들에게는 세탁비를 지불하기로 했다. 평면에 가까운 넓은 지붕과 길이 30m짜리의 대형 칸틸레버(차양막)은 비나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끝없이 펼쳐지는 루체른 호수의 수평선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흡연실을 겸한 옥상 전망대에 서면 루체른 시가지와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KKL의 설계 컨셉트 중 하나는 투명성,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이다. 바깥은 안으로, 안은 바깥으로 향한다. 호수의 수면은 KKL의 지붕을 비추고, KKL의 지붕은 호수의 물결을 거울처럼 비춘다. 호수가 바라보이는 로비의 대형 유리벽에는 건축 기금 기부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2003년 루체른 시의회는 공연장 운영을 위한 총자돈으로 1800만 스위스 프랑의 예산을 승인했다.

클_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자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월간 객석)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조지 이니스의 <래커워나 계곡>



조지 이니스, <래커워나 계곡>, 1855년. 캔버스에 유채, 86 cm × 128 cm,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

여름 방학마다 바닷가로 놀러갈 때 타던 기차,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던 수학여행 기차, 명절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던 기차, 특별한 목적도 없이 홀로 무작정 탔던 기차. 이런 기차 여행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때 차창으로 보이던 풍경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한 두 개 정도는 떠올릴 수 있다. 비행기와 KTX, 고속도로의 발달로 기차여행은 이제 추억과 낭만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지만, 처음 증기기차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거대한 무쇠 덩어리가 굉음을 내지르며 절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기차, 즉 철도는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근대성을 대표하는 문명의 산물이다. 개화기의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철도의 등장은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을 크게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한 기차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속도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좁혔고, 걸거나 마차를 이동할 때 볼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지나가는 거의 정지되어 일일이 볼 수 있는 풍경은 창밖으로 순식간에 흐린 윤곽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되었다. 이런 보는 방식의 변화는 19세기 말의 사진의 발달과 인상주의 화풍의 창시와도 관련이 깊다. 또한 기차는 곧고 평탄하게 놓인 철로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에, 직선과 평면을 선호한다. 도보와 마차길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난, 자연의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길이었다면, 철로는 산이 가로막으면 터널을 뚫고, 물이 가로막으면 다리를 놓는 등 자연을 변형시켜 만든 편평하고 곧은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술과 인류의 진보를 예찬하고, 속도를 통해 얻은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만끽했다. 기차의 속도와 움직임, 커다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 구름, 당대 최선의 기술이 모두 동원된 기차역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지 등은 당대의 모습을 그리고자 한 화가들을 사로잡은 주제가 되었다(그림 1, 2). 한편 기차를 전통적이고 느린, 목가적인 삶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 이들은, 기계 문명을 거부하고 과거 회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산업혁



(그림1) 클로드 모네, <생 라자르 기차역(The Saint-Lazare Station)>, 1877년. 캔버스에 유채, 75 × 104 cm, 파리 오르세 미술관.



(그림2) M. W. 터너(J. M. W. Turner), 〈비, 증기, 속도: 그레이트 웨스턴 철로(Rain, Steam and Speed: The Great Western Railway)〉, 1844년. 캔버스에 유채, 91 × 121.8 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명이 시작한 유럽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소로(Henry Thoreau)가 〈월든(Walden)〉에서 월든 호수의 평화를 깨는 벌목의 위협과 기차의 날카로운 굉음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듯, 기차는 신대륙의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자연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졌다.

“미국 풍경화의 아버지”로 평가되는 조지 이니스(Georges Inness, 1825-1894)의 초기 대표작 〈래커워나 계곡(Lackawanna Valley)〉은 이런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 뉴욕 출신인 그는 처음에는 지도 판각술을 익히다 후에 회화로 전향했고, 당시 개척되던 서부의 광활한 자연을 그림의 주제로 삼은 허드슨 강 화파의 미술을 익혔다. 이후 유럽의 여러 곳을 다니며 대가들의 풍경화를 접했고, 프랑스의 바르비종 화파의 느슨한 붓질과 어두운 색조, 분위기를 강조하는 화풍을 받아들이며, 풍경화가로서의 경력을 쌓아 갔다. 이니스는 도시보다는 시골의 목가적인 풍경을 선호했고, 야외 작업을 하던 인상주의 화가들과 달리 풍경을 본 뒤 스튜디오로 돌아와 기억을 되살려 작품을 제작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850년대 초, 이니스는 델라웨어 앤 래커워나 철도회사의 첫 라운드하우스(수리소와 창고)와 기차의 모습을 담은 풍경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나 위인의 업적을 다룬 것도 아니고, 그림 속의 풍경도 절경이 아니지만, 19세기의 미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림에는 전경의 언덕과 나무, 중경의 마을, 숲, 공장과 정비소, 기차, 원경의 흐릿하게 보이는 계곡 같은 다양한 영역이

지평선 멀리까지 펼쳐져 있다. 밝은 빛과 부드러운 공기가 그림을 균일하게 감싸고 있어 이 모든 요소들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심지어 굴뚝에서 솟아나온 연기도 오염되어 보이지 않고 장면이 리듬을 더 한다. 화면의 왼쪽에는 커다란 활엽수 한 그루가 있고, 그 옆에는 밀짚모자를 쓴 사람이 길게 누워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멀리 보이는 라운드하우스에서는 이제 막 다른 기차가 출발하려 하고, 마을과 교회 뒤로는 그림의 제목이 된 래커워나 계곡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인다. 일견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이지만,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누워 있는 이의 앞에 있는 작은 덩어리들이 나무 등치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한때는 울창했던 숲이 기차길의 침묵이 되고, 사람들의 생활에 쓰이면서 사라졌고, 그랬기에 이런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남아있는 나무 등치는 땅이 입을 상처를 드러낸다.

발전하는 기술 문명과 자연이 한 그림 속에 공존하며 두 가지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따뜻한 빛이 감싸고 있는 그림의 전체 분위기는 편안하고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곳곳에 나타난 산업화의 징후는 이 그림이 마치 파괴 직전의 순간을 포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서부의 개척으로 점점 더 많은 자연이 개발되어 사라졌다. 멀리 보이는 마을은 작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나무 등치는 이곳이 한때는 숲이었음을, 개발과 도시 확장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소리 없이 말한다. 진보는 기차처럼 빠른 속도로 다가오지만, 이를 위해 자연은 큰 희생을 치렀다. 하지만 화면 중앙 오른쪽에 남아 있는 숲 주변으로는 철도가 곡선을 그리고 있어, 파괴를 멈추고 자연과 화해하려는 듯하다.

글_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음악으로 가득한 비엔나 축제

저는 지금 이탈리아 베로나 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동안 런던에 머물며 욕심껏 공연을 보던 저는 영국을 벗어나 다시 본격적으로 유럽 공연기행에 나섰거든요. 오늘은 6월 1일.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옷차림은 초겨울을 연상할 정도로 두텁습니다. 제 이름에 ‘물 하(河)’ 자가 들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비를 몰고 다니는지, 프라하를 거쳐 비엔나에 머물 때까지 비바람이 몰아치네요. 다행인 것은 동유럽권의 음악축제는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해 음악 홀과 성당 등 실내에서 열리기 때문에 공연을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바람 덕분에 저는 가장 보고 싶었던 공연을 또 하나 놓치고 안타까움에 한동안 눈을 질끈 감아야 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일단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음악의 도시 비엔나

‘음악의 도시’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 바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입니다. 누구도 이 수식어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은 과거 수많은 음악가들이 바로 비엔나에 모여들어 깊은 영감을 얻고 수많은 대작을 쏟아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모차르트에서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요한 스트라우스 등 클래식 음악의 거성들이 모두 비엔나를 사랑했습니다. 사실 비엔나는 1년 내 각종 음악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휴가철로 접어드는 이 시기의 축제는 이웃 도시 프라하, 부다페스트의 봄 축제와 어우러져 더욱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비엔나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요 공연장을 중심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호객행위에 노출됩니다. 화려한 연미복에 가발까지, 과거 음악가들을 연상케 하는 차림의 호객꾼들은 공연장과 연계돼 오페라에서

콘서트, 발레 등 각종 티켓을 판매합니다. 특별하게 보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도대체 무엇을 봐야할지 모르겠다면 어떤 공연을 소개할 어떤 호객꾼을 만날지 그날의 운에 맡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엔나의 어떤 공연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엔나에서 만난 뮤지컬 <엘리자벳>

다음 일정 때문에 비엔나에 사흘 밖에 머물 수 없었던 저는 몰아치는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나름 원피스와 블라우스



도 준비했지만, 늦겨울 추위에 모자를 뒤집어쓰고 자켓의 지퍼를 목 끝까지 채운 저와 달리, 공연장을 찾는 몇몇 현지인들의 옷차림은 여느 시상식 못지않네요. 첫날 찾은 공연장은 레이문드 극장. 국내에서는 지난해 초연된 뮤지컬 <엘리자벳>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는 당일 티켓을 대상으로 할인 티켓을 판매하는데요. 유럽의 오래된 공연장이 다들 그렇듯, 이곳 역시 말굽 형태의 극장이라서 가격이 저렴한 좌석은 대부분 무대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후 엘리자벳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뮤지컬에서는 ‘죽음(Tod)’이라는 캐릭터가 설정돼 그녀의 삶이 비운으로 치닫는 모습을 담아냅니다. 공연은 물론 독어로 진행되며, 영어 자막이 제공되는데요. 영

어 자막이 간략해서 무난하지만, 국내에서 공연을 한 번쯤 보거나 적어도 줄거리를 알고 있는 것이 공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블루스퀘어에서 공연된 국내 <엘리자벳>과 달리 비엔나의 원조 무대는 꽤 빈약합니다. 무대 연출은 물론 의상도 국내 무대보다는 화려하지 않네요.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담아낸 무대인만큼 역시 제 옷을 입은 듯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또 무대 곳곳에 코믹함까지 느껴집니다. 시씨가 요제프와 왈츠를 추다 뒷목을 잡거나 시어머니가 말을 타며 꺽꺽거리는 모습은 작품을 화려함으로 치장해 떠받는 것이 아니라 요리저리 갖고 놀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뮤지컬 <엘리자벳>의 힘은 무엇보다 음악이죠. 뮤지컬 <모차르트> <레베카> 등을 배출해낸 실베스터 르베이의 웅장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음악에 배우들의 탁월한 가창력이 더해지면서 공연을 보는 재미가 급상승합니다. 게다가 노래로 듣는 독어가 이렇게 색다르다니요. 평소 거세게만 느껴지던 독어의 발음과 억양이 노래의 강약과 더해지면서 몸을 휘감는 묘한 감동이 있습니다. 2시간여 동안 노래만 들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공연입니다.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신부른 궁전 연주회

뮤지컬에 이어 다음날 찾은 곳은 호프부르크 왕궁 안에 있는 음악홀입니다. 모차르트와 요한 스트라우스 등 비엔나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의 곡으로 꾸며지는 이 클래식 연주회는 펍 대중적입니다. 90분 동안 귀에 익숙한 곡들이 이어지고, 주요 오페라의 아리아를 열창하는 성악가들의 무대 매너도 화려합니다. 또 무대 곳곳에



코믹한 요소를 넣어 근엄하기만 한 공연장 안에 웃음꽃이 피지기도 하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비엔나의 클래식 연주회를 접하고 싶다면 시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제격입니다. 저도 무척 유쾌하게 연주를 들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쇠부른 궁전 뜰에서는 빈 필하모니의 연주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해마다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쇠부른 궁전 뜰에서 열리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기 위해 세계의 음악 팬들이 모여듭니다. 국내에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경북 공 서울시향 공연이 얼마나 멋진가요. 그보다 오랜 역사와 수준 높은 기량을 자랑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쇠부른 궁전 오픈-에어 공연은 세계가 탐내는 이벤트인 것이죠. 저도 이 공연을 보기 위해 훨씬 안락한 루트를 포기하고 무리하게 비엔나를 일정에 넣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날씨까지 꼼꼼히 확인했는데, 결국 공연이 예정된 5월 30일, 비엔나에는 하루 종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오후 6시가 되도록 공연의 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고, 저 또한 쇠부른 궁전 행을 단행할 것인지, 다른 공연장을 찾을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애만 태웠습니다.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이 날씨에 야외공연은 '고행'에 가까웠기 때문에, 앞으로 2달의 공연기행을 남겨둔 저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 공연이 비엔나를 찾은

목적이었지만요. 오후 7시, 쇠부른 궁전 공연은 예정보다 한 시간 늦춰 밤 9시에 시작하기로 결정되고, 저는 쇠부른을 포기하고 다른 공연을 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역시 사는 것처럼 여행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군요. 아쉽지만, 내 뒤통이 아닐 때는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젠 또 비엔나를 다시 찾으라는 신의 계시라 생각하면서요.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

공연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각 도시의 오페라하우스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공연장만 들어가면 입이 귀에 걸리는 저에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엔나 오페라극장에 입성하는 것은 무척이나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비엔나를 찾았을 때는 오페라 <카르멘>과 발레 <돈키호테>가 교대로 공연되고 있었는데요. 미리 티켓을 구하지 못한 저는 암표상과 협상을 거쳐 4층 발코니 석을 구했습니다. 자리를 찾아가는 내내 화려한 드레스와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관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네요. 저도 다음에는 제대로 차려입어 보고 싶습니다만, 이번에는 환한 웃음으로 대신합니다. 저는 발레 <돈키호테>를 관람했는데요. 주인공 남녀의 이중무가 다소 많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시원시원하고 자유분방한 무대, 오케스트라의 현란한 연주가 화려한 오페라극장과 어울려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설과 음향을 자랑하는 비엔나 오페라하우스지만, 이곳 역시 말굽형태이기 때문에 무대 좌우측 발코니석은 시야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유로 정도에도 좌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특별히 무대 맞은 편 1층에도 스탠딩석이 있습니다. 시야 제한 없이 무대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명당인데요. 공연 90분 전부터 선착순 판매하므로, 체력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 자리를 공략해 보십시오. 또 극장 옆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그날의 공연을 실시간 보여주기 때문에, 미처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한 관객들도 화면으로나마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뜻하고 여유로운 음악의 도시 비엔나

프라하에서 비엔나로 이동해서일까요? 유로라인 버스로 4시간 거리의 두 도시이지만, 저에게는 유독 비엔나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훨씬 산뜻하고 무대에서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사람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4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클림트의 화려한 그림, 훈데르트바서의 자유분방한 건축물. 저에게 비엔나는 자유와 여유, 그 안에서 피어난 독특하고 색다른 예술혼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술가들도 이 도시에 찾아든 것이겠죠. 제가 탄 기차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를 거쳐 이탈리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탔으니 7시간째입니다. 이 같은 강행군에 나선 것은 오늘밤 호세 카레라스와 플라시도 도밍고,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 베로나의 고대 원형경기장, 아레나에 서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베로나 오페라축제에 갔을 때 비 때문에 2부 공연이 취소됐는데, 동유럽의 비가 제발 베로나까지 따라오지는 않길 기도합니다!

클 윤하정

KBS 앵커, TBC 방송기자단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중이다.

스토리텔러 베를리오즈



감성의 시대! 소통과 이해를 위한 스토리텔링이 뜨고 있다. 하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19세기 클래식계에도 탁월한 스토리텔러(Storyteller)가 있었다. 주인공은 루이 엑토르 베를리오즈(Louis Hector Berlioz, 1803~1869). 그는 누구인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음악 스타일, 그러니까 음악과 드라마가 결합된 파격의 교향곡을 만들어내 표제음악 창시라는 역사적인 방점을 찍은 인물이 아닌가.

그의 출세작 환상교향곡을 보면 스토리텔러로서의 그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번민하던 예술가가 괴로워하다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져 자신이 좋아하던 여인을 살해하고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기괴한 환상을 경험하는데, 베를리오즈는 이런 스토리를 제시하며 음악을 선보였다. 음악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사전에 소개하고 음악을 듣게 하는 것, 오늘날로 치면 해설이 있는 클래식이니 가히 시대를 앞서간 행보였고 그 자체가 파격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광기 어린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실화를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것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전통 양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악기 조합과 혁신적인 연주기법으로 자신의 머릿속 환상을

그대로 관현악으로 펼쳐 보였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1827년 24살의 베를리오즈는 영국 셰익스피어 극단의 프랑스 파리 공연을 통해 연극 '햄릿' 을 보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오필리어를 연기한 미모의 여배우 해리엇 스미드슨(Harriet Smithson)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를 향한 연정을 수년동안 편지를 통해 전했다.

하지만 인기 절정의 여배우가 무명의 베를리오즈가 보낸 펜레터에 관심을 둘 리 없었고 게다가 프랑스어를 읽지 못하는 그녀는 그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베를리오즈는 돌아오지 않는 대담에 절망했고 이에 베를리오즈는 환상교향곡에 '어느 예술가의 생애 이야기' 라는 부제를 달고 스미드슨을 향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랑을 표현했다.

꿈과 열정, 무도회, 들의 풍경, 단두대로의 행진, 바르푸르기스의 밤의 꿈 등 5개의 제목을 붙여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인 스미드슨을 상징하는 선율을 각 악장마다 알맞게 배치하고 리듬과 약기를 변화시켜 병적인 절망과 환각의 환상을 극대화시켰다. 그리고선 작품 속에 실연(失戀)한 예술가가 베를리오즈 자신이고 살해되는 여인이 스미드슨으로 표현해 나름 복수를 했다.

하지만 후에 우연히 환상교향곡 연주회장에서 조우하게 된 두 사람이 결국엔 결혼에 골인하게 되지만 환상으로 덧입혀진 이들의 결혼이 현실에서 행복할리 없었다. 비극으로 그려진 환상 교향곡처럼 이들의 사랑도 좋게 매듭지어지지 못했다.

사실 베를리오즈의 인생에는 스미드슨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여인이 있었다. 12살 때 찾아온 첫사랑의 여인 에스텔 포니에(Estelle Fornier)와 스미드슨을 향한 작사랑의 고통으로 힘들어할 당시 그에게 위로가 돼줬던 연인 카미유 모크(Camille

Moke) 그리고 베를리오즈의 두 번째 부인인 마리 레치오(Marie Recio)가 베를리오즈 인생에 찾아든 여인들이었다. 살펴보면 베를리오즈는 사랑에 빠지면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고 열병을 앓은 스타일이었고 그에게 사랑은 곧 투쟁이었다. 그러기에 일단 사랑을 얻고 나면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고뇌가 음악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베를리오즈에게 사랑은 창작을 위한 양분이었지 그 이상은 되지 못했던 것이다. 베를리오즈는 카미유 모크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에 당장 그녀를 죽이겠다고 총을 들고 복수극을 시도하는 다혈질이기도 했고 또 목숨과도 바꾸려고 했던 스미드슨과의 사랑은 자기 환상에 칠해진 사랑이라 결국 외면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마리 레치오의 경우는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이 사랑이 역시 길게 이어지지 못했고 첫사랑 에스텔 포니에의 경우는 끝내 이루지 못한 첫사랑이었기에 미련이 남아있었는지 베를리오즈는 두 번째 아내 마리 레치오가 죽고 난 이후 노년의 미망인이 된 에스텔 포니에를 찾아갔다. 그리곤 죽을 때까지 벗으로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냈다.

베를리오즈 인생에 과연 사랑은 무엇이었고 진정한 사랑은 존재했을까.

글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Performances

이유현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7.2(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
주 최 | 이유현(개인)

■ 공연개요
독일의 작곡가 슈만의 피아노 곡으로 피아니스트 이유현의 독주회를 개최

■ 작품내용
- Schumann Kinderszenen OP. 15
- Schumann Piano Sonata No. 2 in g minor OP. 22
- Schumann Symphonic Etudes OP. 13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NH농협은행 "푸른 음악회"

일 시 | 7.3(수)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

■ 공연개요
서울팝소악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울산시민을 위한 사회공헌 음악회

■ 작품내용
- La Cumparsita For Accordion
- Zigeunerweisen Op. 20
- Children of Sanchez
- La danza
- Cubana Carnival 외 다수

콘서트콰이어 "오인오색"

일 시 | 7.4(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울산콘서트콰이어

■ 공연개요
5명의 성악가들의 5가지 색을 노래하는 중창공연

■ 작품내용
- 오페라카르멘 '하바네라'
- 고양이 이중창
- 새벽은 빛으로부터
- 오페라 라보엠 '외투의 노래' 등

최현우 매직콘서트 "설록홀츠의 귀환"

일 시 | 7.6(토) 15:00/19:00
7.7(일) 14:00/18: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77,000 · R/66,000 · S/55,000
주 최 | 이디엔터테인먼트

■ 공연개요
스토리가 살아 있는 최현우 매직의 결정판 설록홀츠 시리즈의 2013년 전국투어

2013 내드름 연희단 정기공연 "굿이어~"

일 시 | 7.6(토)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2,000
주 최 | 내드름 연희단

■ 공연개요
울산을 대표할 수 있고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최고수준의 브랜드 상품으로 제작한 한국형 월드뮤직&퍼포먼스

■ 작품내용
- 놀이 "손님맞이와 고객맞이"
- 축원 "액막이와 살풀이"
- 점신 "신을 접하다"
- 신명 "하늘 밝혀 신명 풀자"

두비두비 코앤코 음악회

일 시 | 7.10(수) 10:40/12:4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5,000
주 최 | 코앤코 교육

■ 공연개요
7세 이전유아들에게는 제한되어 있는 공연장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경험의 기회 제공

■ 작품내용
- 코앤코 Hello Song
- 위풍당당 행진곡 / 헝가리무곡
- 동요(뽕보롱 뽕보롱, 개구리와올챙이)
- 발레 "호두가기 인형" 과 함께하는 발레 음악여행 등

남구 구립교향악단 "오페라의 밤"

일 시 | 7.12(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남구구립교향악단

■ 공연개요
클래식 및 합창음악을 통해 울산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오페라를 공연

청소년합창제 "Voice of harmony"

일 시 | 7.13(토) 17: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공업탑 청소년 문화의 집

■ 공연개요
울산지역 청소년 및 시민과의 합창제를 통한 화합의 장 (매년 개최)

오페라 "사랑의 묘약"

일 시 | 7.18(목) 20:00
7.19(금) 17:00/2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
주 최 | 울산현대오페라단

■ 공연개요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한글로 번역하여 연주

■ 작품내용
아디나를 짝사랑하는 소심한 네모리노는 돌까마라에게 여자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약은 없는지 묻는다. 돌까마라는 백발백중의 사랑의 묘약이 있다면서 싸구려 포도주를 주는데..

제17회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창작동요 발표회

일 시 | 7.20(토) 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동요사랑회

■ 공연개요
전국의 유명 작곡가가 만든 창작동요 30여곡을 울산 어린이들을 통해 발표

만원의 행복 - 희망콘서트

일 시 | 7.21(일) 18: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문화예술기획 워드아트

■ 공연내용
워드아트가 주최하고 월드비전이 주관하는 아이티 희망학교세우기 자선공연

■ 작품내용
- Amazing Grace 외 6곡
- 워드아트 4rest
- 월성 누기 어린이합창단 보물 외 2곡 등

제10회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7.23(화) 2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

■ 공연내용

울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중구 심포니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갖는 첫 정기연주회로 현악기와 목관악기, 타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

■ 작품내용

- Verdi - Symphony for String
- 마림바 협주곡
- Saint Saens - Le Carnaval des Animaux 등

가족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일 시 | 7.27(토) 11:00/14:00/16:00
7.28(일) 13:00/15: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R/20,000 · S/15,000
주 최 | 누리

■ 공연내용

일단 무엇이든 빨기를 좋아하는 씩씩한 엄마의 빨래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지는 모습을 아이들의 관점에서 자연스런 참여를 통해 어린이 관객은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엄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가족 뮤지컬

가족뮤지컬 “헨젤과 그레텔의 마법 과자집”

일 시 | 8.17(토) 11:00/14:00/16:00
8.18(일) 11:00/14: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
주 최 | 가람뮤지컬

■ 공연내용

어린이 베스트셀러 “헨젤과 그레텔의 마법과자집”을 신나는 노래와 춤이 가미된 뮤지컬로 제작

■ 작품내용

그림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어린이 시각에 맞춰 새롭게 각색한 뮤지컬로 굶주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가족들에게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가족 간의 사랑을 보여주하고자 하여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끈끈한 사랑으로 인내하며 옹기 있는 어린이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박선영 무용단 창작무용 “인연”

일 시 | 8.17(토) 18: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박선영무용단

■ 공연내용

박선영 무용단의 창작 한국무용.

■ 작품내용

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옷깃을 날리면 잠시 잊혀진 인연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연으로 스쳐 지나며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새싹이 돋고 푸른 잎이 자라듯 작은 인연은 자라고 또 자랍니다.

제11회 우리소리예술단 정기연주회

일 시 | 8.20(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우리소리예술단

■ 공연내용

지역 여건상 자주 접하기 어려운 전통민요(특히 제주민요)의 보급과 민속놀이를 결집인 노동요 등 다양한 시도의 공연

■ 작품내용

- 금강산타령, 노랫가락
- 선반 설장구
- 독주, 청춘가, 창부타령
- 울산학춤
- 제주민속놀이, 물허벅노래, 동구대당실
- 뱃노래, 잦은 뱃노래, 울산아가씨 마지막 아리랑 등

제12회 국악실내악단 파래소 정기연주회

일 시 | 8.21(수)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파래소 국악실내악단

■ 공연내용

전통음악의 새로운 해석으로 신선하고 젊은 국악공연

■ 작품내용

- 도당 굴을 주제로 한 “다스름”
- 아쟁과 대금의 “의곡지성”
- 대금을 위한 “도라지”
- 대금을 위한 “바람의춤”
- 한오백년 등 다수다.

창작 합창음악의 밤

일 시 | 8.22(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작곡가협회

■ 공연내용

합창음악의 다양한 변화 시도와 현대적 합창 음악을 작곡하여 새롭고 다양한 음악적 접근을 시도

■ 작품내용

- 낙동강, 울산 12경, 물래, 강동 주전바다 등
- 울산의 노래 : 소호리 느티나무, 신불산, 온산, 암각화 등
- 춘향, 기도, 사랑노래 등

뮤지컬 “Sound of music”

일 시 | 8.23(금) 17:00/2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울산현대오페라단

■ 공연내용

“사운드 오브 뮤직”을 해설을 곁들인 뮤지컬 작품.

제8회 아시아 시로 만나는 생태. 평화 시인축제

일 시 | 8.24(토)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시사랑 울산사랑

■ 공연내용

동해를 사이에 둔 한국과 일본의 시인들이 한자리에 만나 고래가 회유하는 바다가 두 나라의 자연임을 확인하고 생명에 대한 시 낭송과 춤을 통해 바다의 평화를 기원하는 축제

2013 여름음악 페스티벌

일 시 | 8.25(일) 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한국피아노지도자

■ 공연내용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한 피아노 듀오 음악회

Exhibition

울산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기간 | 7. 4(목)~7. 10(수), 7일간

장소 | 제1,2,3전시장

주최 | 울산제일일보

■ 전시내용

울산제일일보가 주관하고 한국목판화협회가 주최하는 한마중일 4개국 목판화 작가 70여명이 참가하는 전시로, 4개국의 문화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와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목판화 100여점 전시

울산대 서양화와 졸업작품전

기간 | 7. 4(목)~7. 10(수), 7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울산대 서양학과

■ 전시내용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전공 학생들의 졸업 작품전으로, 참신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통해 울산시민과 함께하며 전통적 회화 방법 및 실험적 매체 표현 등 새로운 작품들로 졸업예정자 18명의 서양화 작품 36여점 전시

제14회 울산구상작가회 정기전

기간 | 7. 11(목)~7. 16(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구상작가회

■ 전시내용

울산구상작가회의 제14회 정기전으로, 울산에서 활동 중인 구상계열 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20명이 미술작품 40여점 전시

울산제일일보 보도사진전

기간 | 7. 11(목)~7. 16(화), 6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울산제일일보

■ 전시내용

울산제일일보 신문사 사진부 기자들이 1년여 동안 울산의 자연, 문화, 축제, 민속, 레저 등 울산의 직접 보고 느낀 사진들을 취재하여 활용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울산의 현장 소식을 지면으로 보도한 사진작품 총 60여점 전시

손명진 서양화 개인전

기간 | 7. 11(목)~7. 16(화), 6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개인(손명진)

■ 전시내용

작가의 주제에 의한 화면의 재구성 등을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캔버스 위에 표현한 서양화 작품 30여점 전시

강상구 문인화 개인전

기간 | 7. 11(목)~7. 16(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개인(강상구)

■ 전시내용

개인의 창작성에 바탕을 둔 한글, 한문 등 서예 작품들과 글과 그림이 어우러지는 문인화가 함께 하는 전시로 총 30여점 전시

제17회 울산서예대전 심사

기간 | 7. 17(수), 1일간

장소 | 제2,3전시장

주최 | 울산서예협회

■ 전시내용

울산서예협회가 제17회 울산광역시서예대전의 작품을 공모하여 작품심사 개최

울산관광기념품 공모전

기간 | 7. 18(목)~7. 23(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광역시(관광과)

■ 전시내용

울산의 문화와 역사적 특성을 살린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제6회 먹물 향기전

기간 | 7. 18(목)~7. 23(화), 6일간

장소 | 제2,3전시장

주최 | 울산미협 서예분과

■ 전시내용

전통적인 서예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각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며 한문, 한글, 서각 등 다양한 장르의 표현으로 선현들의 명언을 다양한 서체에 담아 묵향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서예작품 80여점 전시

제17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기간 | 7. 18(목)~7. 23(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경상일보

■ 전시내용

창간 24주년을 맞이한 경상일보사의 제17회 보도사진전으로, 지난 1년 동안 울산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현장의 찰나 등 경상일보 지면을 통해 독자와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은 80여점의 사진작품 전시

제3회 스튜디오블루 사진전

기간 | 7. 25(목)~7. 30(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Studio BLUE

■ 전시내용

울산에 거주하는 사진가 모임인 'Studio BLUE' 멤버들이 회원들이 오랫동안 마음을 담아 촬영하여 각자의 주제와 개성을 표현한 사진작품 30여점을 주제별로 전시

제8회 울산현대한국화회 정기전

기간 | 7. 25(목)~7. 30(화), 6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울산현대한국화회

■ 전시내용

울산 현대한국화회 작가와 대전한국화회 작가와의 교류로, 한국화의 전통기법과 현대적 기법 및 지역간의 공감대를 이루고 한국화의 다양성을 울산시민에게도 알리기 위한 한국화 작품 40여점 전시

제1회 김기태 개인전

기간 | 7. 25(목)~7. 30(화), 6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개인(김기태)

■ 전시내용

아이의 생김새, 순간순간 취하는 동작들을 정물 형식으로 촬영한 사진 26여점 전시

제4회 울산신문 보도 사진전

기간 | 7. 25(목)~7. 30(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울산신문사

■ 전시내용

울산신문의 창간 7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제4회 보도사진전으로, 시민들에게 친화적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미래울산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100여점의 사진작품 전시

흑백사진연구회 합동전시회

기 간 | 8. 1(목)~8. 6(화),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흑백사진연구회

■ 전시내용

공무원 사진회, 울산 사진학회 및 흑백사진연구회의 합동전시회로 흑백사진 작품 80여점 전시

제34회 울산여류작가회 회원전

기 간 | 8. 1(목)~8. 6(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울산여류작가회

■ 전시내용

1987년 창립하여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순수미술을 전공한 여성 미술인들의 모임으로, 섬세한 표현력과 다양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회화작품 26여점 전시

제10회 소봉서화회 정기전

기 간 | 8. 1(목)~8. 6(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소봉서화회

■ 전시내용

회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과 서예, 한국화, 전각 등의 개인작품 40여점 전시

울산대 서양화 동문전

기 간 | 8. 8(목)~8. 13(화),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그룹1998

■ 전시내용

울산대학교 서양화 동문회의 여섯 번째 정기전으로, 창조적이고 다양한 시각적 미술작품 40여점 전시

제2회 주상숙 개인전

기 간 | 8. 8(목)~8. 13(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개인(주상숙)

■ 전시내용

인간들의 해학적 내용을 동물을 등장시켜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서양화 작품 27여점 전시

김이화동화의 재해석

기 간 | 8. 8(목)~8. 13(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개인(김이화)

■ 전시내용

5가지 동화의 숨겨진 이야기를 현대의 사회적 문제로 풀어 내는 장소 특정 예술로, 관객이 모든 작품에 작품의 일부로서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현대 미술의 한 장르를 한국에 소개하는 전시

제11회 참얼서우회 회원전

기 간 | 8. 8(목)~8. 13(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참얼서우회

■ 전시내용

참얼서우회의 열한번째 정기회원전으로, 정통 한글 궁체의 정자 및 판본체를 위시한 한글의 아름다움을 서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작품 50여점 전시

제10회 이상한 개인전

기 간 | 8. 15(목)~8. 20(화),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개인(이상한)

■ 전시내용

섬을 주제로 자연의 미묘한 움직임을 현대적 감성에 맞춘 현대미술작품 30여점 전시

제9회 최병화 개인전

기 간 | 8. 15(목)~8. 20(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개인(최병화)

■ 전시내용

생활 용도로서의 그릇의 미 뿐만 아니라 흙으로 빛은 그릇의 질박한 아름다움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정면에서가 아닌 수직에서 관찰한 둥근 그릇을 평면적으로 조형화 한 작품 등 25점 전시

제7회 김호태 개인전

기 간 | 8. 15(목)~8. 20(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개인(김호태)

■ 전시내용

도시 풍경을 소재로 하여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독특한 구성으로 표현한 유화작품 30여점 전시

제4회 김용규 개인전

기 간 | 8. 15(목)~8. 20(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개인(김용규)

■ 전시내용

산업도시의 메카인 울산의 시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조물과 현재의 대표성을 띠는 구조물들을 자연과 융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사진 40여점 전시

제17회 울산광역시서예대전

기 간 | 8. 22(목)~8. 27(화), 6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울산서예협회

■ 전시내용

울산서예협회가 제17회 울산광역시서예대전의 작품을 공모, 심사하여 입상자 및 초대작가, 운영위원의 작품 약 300여점 전시

제13회 울산대 동양화와 졸업작품전

기 간 | 8. 29(목)~9. 3(화),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울산대 동양학과

■ 전시내용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전공 학생들의 졸업 작품전으로, 졸업예정자 7명의 작품 30여점 전시

제2회 울산사랑 어른신 서예대전

기 간 | 8. 29(목)~9. 3(화), 6일간
장 소 | 제2,3,4전시장
주 최 | 중구노인복지관

■ 전시내용

울산 거주 만 60세 이상 남녀 어른신을 대상으로 서예대전을 개최하여, 입상자 작품 약 200여점 전시

7·8월의

공연·전시



당신의 **블링블링**한 ART 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중한 여유
가슴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일반회원 (만19세이상)	가족회원 (4인가족)	청소년회원 (만7세이상~ 만18세이하)	단체회원 (10인기준)	비고
1년	20,000	40,000	10,000	100,000	
3년	50,000	100,000	25,000	250,000	15%할인
5년	80,000	160,000	40,000	400,000	20%할인
10년	150,000	300,000	75,000	750,000	25%할인

※ 단체회원은 1인 추가시 10,000원

회원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간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회원가입하실 때 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비납부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시 30%이내 할인
(일반회원 2매, 청소년회원 1매, 가족회원 4매, 단체회원은 본인에 한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 시 30%이내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할인혜택 부여(일부 대관공연제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태화강에 흐르는 행복의 시간

대숲콘서트



2013. 7. 9(화) 오후 8시
8. 13(화) 오후 8시

태화강대공원 느티마당

공연문의 <http://www.ucac.or.kr>
☎ 275-9623~8

| 주최 | 울산광역시

| 주관 | 울산시립예술단

※ 우천시 공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